



조선과 서양의 조화, 덕수궁

많은 사람들이 개항의 무대를 항구도시에서 찾지만, 정동 역시 개항으로 인해 가장 극적으로 변모한 중심지였다. 정동의 중심에는 덕수궁이 있었다. 덕수궁은 조선 왕조의 왕궁이자, 대한제국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다. 전통 궁궐 건축과 함께 지리한 석조전과 같은 서양식 건축물은, 급격한 근대화 속에서 조선이 서양과 조화를 모색한 흔적을 또렷이 보여준다. 서울 한복판에서 전통과 근대, 동아시아와 서양 문물이 교차한 대한제국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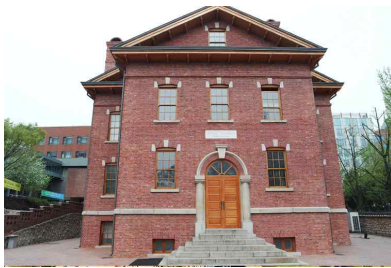
근대 교육의 시작, 배재학당

배재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서구식 사립교육기관으로, 조선인들이 처음으로 근대 학문과 서양 교육제도를 체계적으로 접한 혁신의 현장이었다. 교육과정으로는 영어, 과학, 체육 등 기존 유교 중심 교육과는 전혀 다른 지식이 가르쳐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국제 교류를 통해 조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인재로 성장했다. 배재학당은 단순한 학교를 넘어, 서양 문물의 직접 수용과 다문화 가치의 확산이 시작된 출발점이었다.



새로운 사상을 전파한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는 한국 개신교의 뿌리가 시작된 곳으로, 개신교 전파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유입을 담당했다. 성경 번역, 근대 문해 교육, 사회 계몽 활동 등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당시 조선이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여성 교육의 시작, 이화학당

이화학당은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메리 스크랜틴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이다. 당시 여성은 교육 대상에서 배제되던 시대였으나, 이 곳을 통해 많은 여성이 학문과 문화를 배우며 주체적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의 확장을 넘어,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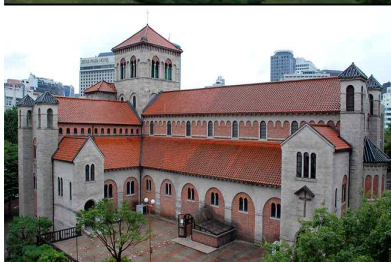
국제 외교 네트워크의 공간, 손탁호텔

손탁호텔은 독일 여성 마리 앙투아네트 손탁이 1902년 설립한 호텔이다. 대한제국 조정 관리와 서양 외교관들이 뒤섞여 모여 다양한 사고와 정치적 담론이 오갔던 국제적 외교 네트워크의 장이었다. 특히 대한제국 주재 외교관들이 결성한 '서울 클럽'의 주요 모임 장소 중 하나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 곳에서 당시 친미·친러 성향의 정치인들이 외국인과 교류하며 '정동파'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기도 하는 등, 손탁호텔은 국제도시 서울의 시작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다.



열강 외교의 회오리 속 정동, 구 러시아공사관

구 러시아공사관은 열강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선의 운명을 좌우했던 국제정치의 무대이다. 특히 아관파천을 통해 고종이 이 곳으로 거처를 옮겼던 사건은, 조선 제일의 권력과 안전조차 외국 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던 현실을 상징한다. 구 러시아공사관은 당시 외교의 불안정성과 절박함, 그리고 정동이 얼마나 국제 이슈의 중심에 놓여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딕과 한옥의 만남,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고딕 건축 요소와 한국적 전통 재료가 조화롭게 결합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은, 서양 종교 건축이 조선의 문화 환경 속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린 결과물이다. 이 곳은 단순히 종교 전파의 공간을 넘어, 예술·교육·자선 활동을 총괄하며 기독교의 사회적 기능이 확장되는 통합적 공간으로 기능했다. 문화 수용과 토착화의 과정이 건축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예시다.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